

故 金東鎬教授 紹介

沈 奉 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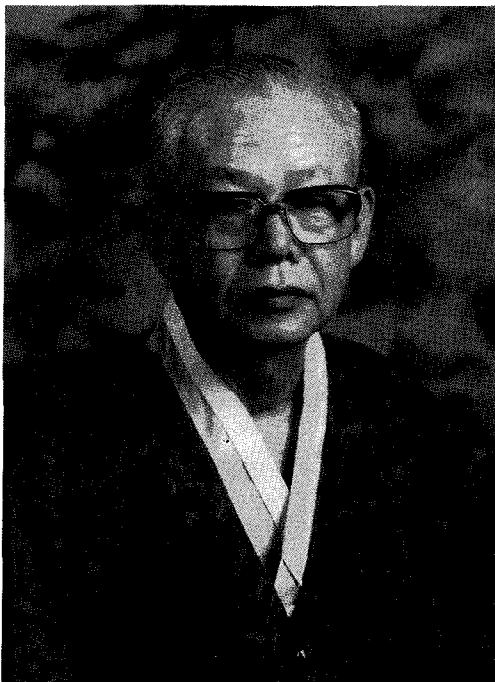
교수님의 本貫은 慶州이시고 雅號는 靜山이시며 1927년 4월 7일 忠淸南道 燕岐郡 西面 鳳岩里에서 부친 甲濫 翁과 모친 昌原 黃氏 사이의 4男으로 태어나셨다. 1955년 10월 1일 金海人 正守 翁의 장녀 金英子님과 결혼, 장남 文煥(현재 한국전력근무)군과 차남 重煥(현재 일본거주)군을 슬하에 두고 다복한 생활을 하시다가 지난 1996년 6월 2일 급환으로 부산시 동구 수정동 자택에서 별세하셨다. 교수님은 홍익대학교 사학과를 졸업(1954)하시고, 동아대학교 대학원 사학과를 수료(1969)하셨으며, 日本慶應義塾大學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1984)하셨다. 그 동안 부산훈성여자중학교, 대동중학교 교사로 재직하신 것을 시작으로 (1955-1969) 동아대학교 박물관 촉탁과 문리과대학 시간강사직을 거쳐 사학과와 고고미술사학과의 전임강사에서 교수에 이르기까지 오래동안 제자 양성에 힘쓰시다가 정년하시게 되었다(1969-1992). 동아대학교 재직시에는 동아대학교 부속박물관장직을 비롯해서, 경상남도 와 부산시 문화재위원, 문화공보부 문화재전문위원, 영남고고학회회장 등 대학과 지역사회, 학회에 봉사하는 기회를 가지면서 맡은바에 대해서는 항상 최선을 다하셨다.

또 우리나라 발굴조사의 초창기인 1960년대 말기 동래북천동고분군을 비롯해서 고성동의 동패총, 함양상백리고분군, 창녕계성고분군, 통영상노대도패총 등 부산·경남지역에 위치하는 대소유적을 직접 조사하고 보고서를 간행하는 등 그 활약상이 뛰어나서 당시 고고학계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셨다. 특히 남해안에 위치한 신석기시대유적을 중심으로 한 「고대 한·일 문화교류관계사연구」 결과는 나중에 일본 慶應大學에서 학위논문으로서 인정 받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아 학계를 놀라게 할 정도였으며, 간혹 공항과 항만을 통해 해외로 유출되는 동산문화재 감독에도 일익을 담당하셨다.

평소 과묵하시면서 학생들에게는 엄하시고 소주를 즐겨 마시지만 주량은 그렇게 많지 않았으며, 장시간에 걸친 약주시간의 대화내용은 주로 전공분야에 대한 것이어서 마치 강의시간의 연속이라고 평가하는 학생들도 있을 정도로 주변 사람이나 사회에 대한 평가는 일체 삼가하는 전형적인 학자모습을 보이셨다. 그러나 불의를 보고는 참지 못하는 불 같은

* 東亞大學校 考古美術史學科 教授 兼 博物館長

성격이 간혹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수도 있었지만, 소박하시고 인정 많으신 평소의 생활은 충청도 시골동네 아저씨와 같은 느낌도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동료와 후학들의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고 있다. 아마 지금도 하늘에서 쉬지 않으시고 후학들을 지켜보시면서 열심히 고고학을 공부하고 계실것만 같은 교수님의 열성이 눈앞에 떠오른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靜山 金東鎬 教授 近影〉



〈東萊 福泉洞 第1號墳 發掘現場에서의 靜山 金東鎬 先生 모습(1969年)〉



〈맨 우측 모자 쓰신 분〉



〈앞열 좌측에서 두번째〉

〈1977年 泗川 禮樹里 古墳群 發掘調査 當時의 故 靜山 金東鎬 先生〉



〈上老大島 試掘調査 當時の 故 靜山 金東鎬 先生(1977年)〉



〈上老大島 發掘調査 當時の 故 靜山 金東鎬 先生(1978年)〉